

2019 문화계 결산 ② 공연



2019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발레,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광주시립발레단의 '라 실피드' 중 한 장면.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세계적인 거장들의 클래식 향연

조수미·선우예권·체코 야나체 필하모닉 등...공연축제 '그라제' 눈길 세계수영대회 관련 공연 풍성...8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해의 무대도

올해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음악, 연극, 영화 등 여러 분야에 작품을 올리며 성찬을 차렸다. 지역 축제인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는 올해 여름 광주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소프라노 조수미, 체코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등 클래식의 향연도 이어졌다.

지난 7월 광주에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와함께 광주는 축제의 도시로 변모했고 경기장, 선수촌, 5·18민주광장, 광주폴리, 공연마루, 전통문화관 등 발길 닿는 곳이 공연장이 무대이고, 전시장이었다.

해의 거리예술가들이 참여하는 '2019 아시아마임페스티벌', 대회 주 경기장과 선수촌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리지페스티벌, 대구의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달빛동맹 교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전국에서 모인 96개 팀 시민 공연예술가들의 풍성한 공연을 남부대, 선수촌 등에 설치된 공연무대에서 매일 즐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국립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 로보틱스 퍼포먼스 공연, 아시아 컬처마켓 등이 펼쳐졌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클래식의 별들이 찾아왔다. 8월 말 열린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3회 여수음악제'에는 2017년 반클라이버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바이올린 거장 강동석 등이 무대에 올랐다. 또 지휘자 요엘레비가 KBS교향악단과 함께 관객들을 만났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노부스 콰르텟, 기타리스트 박규희,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임지영·양인모 등이 무대에 올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ACC 슈퍼 클래식'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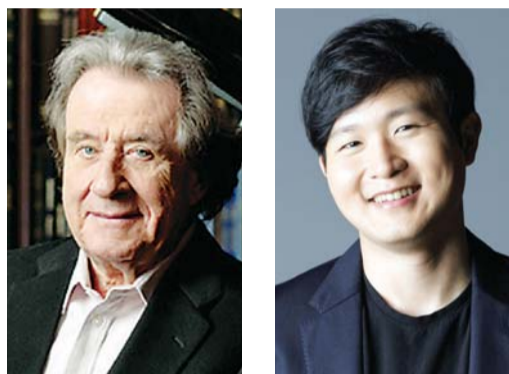
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연주자들의 무대를 마련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가 지난 9월 열렸으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소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협연, 65년 전통의 체코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졌다.

광주지역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활발했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현존하는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낭만 발레작으로 꼽히는 '라 실피드'를 무대에 올렸다. '라 실피드'는 '백조의 호수', '지젤'과 함께 3대 '발레 불방' (백색 발레)로 불리며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22년 만에 펼쳐지는 전막 공연이었다. 또 연말 인기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은 4회 공연 매진을 기록했다.

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러시아 소치 시리우스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판소리 '흥보가'를 각색한 창극 '흥보가'를 공연했고 시립교향악단(지휘자 김홍제)은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호른리스트 카르스텐 케리 더핀을 비롯해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이범주와 정기공연을 진행했다.

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은 안톤 체호프의 '세자매'를 무대에 올려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앙상블, 현실 속에 있을 법한 생생한 캐릭터, 체호프 대사 특유의 뉘앙스 등을 통해 사실주의 연극의 정수를 선보였다. 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은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을 광주 최초로 전막 공연했다. 공연은 광주·대구가 함께 진행하는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처음으로 합작해 공동 주최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장 윤영문)은 프랑스 보르도소년소녀합창단 15주년 기념 공연에 초청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국에서 현지공



루돌프 부흐빈더

선우예권

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한상일), 시립합창단(지휘자 김인재)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과 만났다.

연극계도 창작극, 고전극 등 다양한 연극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제22회 광주소극장연극축제(GJSTF)에는 극단 '예린', 'DIC', '좋은친구들', '시만', '청춘'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슬픈연극', '아름다웠던 시간' 등의 연극을 선보였고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공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그리스, 미국, 중국 등 4개 팀의 해외 초청 공연을 비롯해 단막극, 심리극 등 19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연극 '시간을 철하는 사람' 시범 공연을 선보였고 전국의 극단들은 한 데 모여 '연극 있다. 있다 페스티벌' 소극장 축제를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화가 스크린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광주CGI센터에서는 5·18을 주제로 한 영화 '김군' (감독 강상우)을 선보였으며 광주 독립영화관(관장 유수안)은 자체 기획으로 '5·18 39주기 특별기획전'을 열어 총 7편의 '오월' 작품을 상영했다. 독일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오버하우젠 월드 투어', 대한민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제8회 스웨덴영화제, 올해 10회를 맞은 광주여성영화제 등도 눈길을 끌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인협회 신임 회장에 탁인석 수필가 선출

광주문인협회(문협) 신임 회장에 탁인석(사신) 수필가가 선출됐다.

문협에 따르면 탁 수필가는 지난 20일 광주에총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이근모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뽑혔다. 이날 탁 후보는 409명의 투표자 가운데 243표(59%)를 얻었으며 이 후보는 165(41%)표에 머물렀다. 무효표 1표. 탁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

탁 신임회장은 "문협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활성

화에 협회 운영의 초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원고료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문화메세나 운동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탁 회장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문단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젊은 작가지방생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시낭송회, 시화전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사분오열된 문단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생활속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쏟겠다는 계획



이다.

탁 회장은 "문단의 소통과 화합, 상생뿐 아니라 향후 건립되는 광주 문학관이 명품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협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 교수 출신의 탁 수필가는 수필가비평인 신상으로 등단했고 '예술광주' 편집 주간, '광주문화21' 발행인, (사)스텔라포에마 토요시낭송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펜문학광주본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다양함 속 통일된 문화 '하나된 아시아'

亞太文化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27일까지 우영갤러리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27일까지 광주 우영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아시아문화가 '아시아인이 바라보는 아시아'를 모토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사진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첫 행사를 치렀다.

'하나된 아시아(One-Asia)'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공모전은 아시아문화의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찾아보려 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아시아문화는 경계를 뛰어넘어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문화 전파는 각국의 전통·식·주와 혼용돼 새로운 아시아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전시작은 지난 11월 250명의 사진가들이 출품

한 523점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38점이다. 수상작은 수백 수천의 색깔을 지닌 아시아의 역사, 민속, 문화유산, 자연, 의식주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윤위정 작가의 '풍년기원 소경기' (2019)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행사 모습을 역동적으로 잡아냈으며 특별상 수상자인 김규하 작가의 '그들의 생존방식'은 중국 산시성 시안의 시장 풍경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그밖에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초원, 태극 방목 야시장, 미얀마 산주 시보의 새벽시장, 인도네시아 발리의 축제 현장 등 아시아 각국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상 수상작 윤위정 작가 '풍년기원 소경기'

조재환 화백 88세 맞아 '미수(米壽)전'

24~30일 갤러리 D, 40여점 전시

원로화가 하당(夏塘) 조재환 화백 '미수(米壽)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 D에서 열린다.

조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문인화와 서예, 화조화 등 40여점을 선보이며 제자들을 지도할 때 내건 체본(體本) 작품들도 전시한다.

7세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서·화학을 익혔던 그는 1958년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문하에 입문해 사사받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연진미술원 1기 수료생으로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예, 화조화 등 다양한 장르를 공부한 그는 구수를 앞둔 지금도 붓을 놓지 않고 작업하고 있다. 특히 욕심을 덜어내는 무욕(無慾)의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그의 작품은 정적이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긴다.

조 화백은 지난 1983년 동림미술연구원을 열어 후학들에게 문인화, 한국화, 서예, 화조 등 다양한 장르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자들의 습작전인 '동림미술원 송복회원



'가을서정'

전'을 19회째 개최했다. 조 화백은 제자들에게 늘 자신을 배우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한다.

조 화백은 "때론 넘어지고, 욕심부려 채우다가 속절없이 비우다가 미수가 됐다. 자고 먹고 그림 그리며 배배 살다보니 주위는 커녕 내 자신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삶이 아닌가 싶다"며 "흐르는 물보다 끈 물이 제 자신을 비취를 수 있다는 아주 사소한 진리를 새겨 미수기념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시 오픈식 24일 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공공도서관 대출 1위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올해도 공공도서관 대출 1위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도서관 최고 인기 도서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948개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서관 정보나라'를 통해 1~11월 대출 데이터 8388만여 건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문학이 강세를 보였다. 2위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나미야 집회점의 기적', 3위는 이기주가 쓴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다. 야쿠마루 가쿠의 소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과 백세희의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각각 4, 5위에 올랐다.

비문학 도서 대출 1위는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 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